

염리동 시티빌 201

Cityville 201, Yumli-dong

손기찬/ 동이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hn Kee-Cha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7번지 100호, 102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도	연립주택
대지면적	714.00㎡(216.04평)
건축면적	310.11㎡(93.08평)
연면적	1584.03㎡(479.16평)
건폐율	43.43%
용적률	147.39%
조경면적	125.59㎡(38.06평)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사이딩 마감
세대수	15세대
주차대수	10대
설계담당	손관호, 주용윤, 신현철, 김현주

“가로미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의 공간영역에 대하여 확실한 영역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집 바깥까지도 ‘내부화’하여 생각할 것, 자신의 집안까지도 ‘외부화’하여 생각할 것, 2개의 영역에 대하여 공간을 동일화하여 생각할 것, 또는 공간을 통일하여 생각할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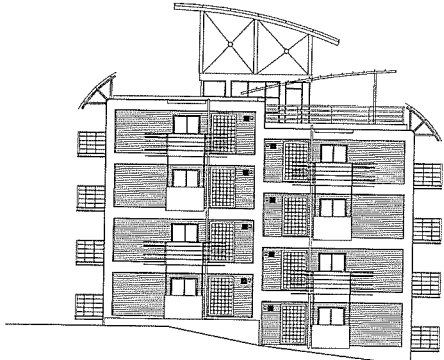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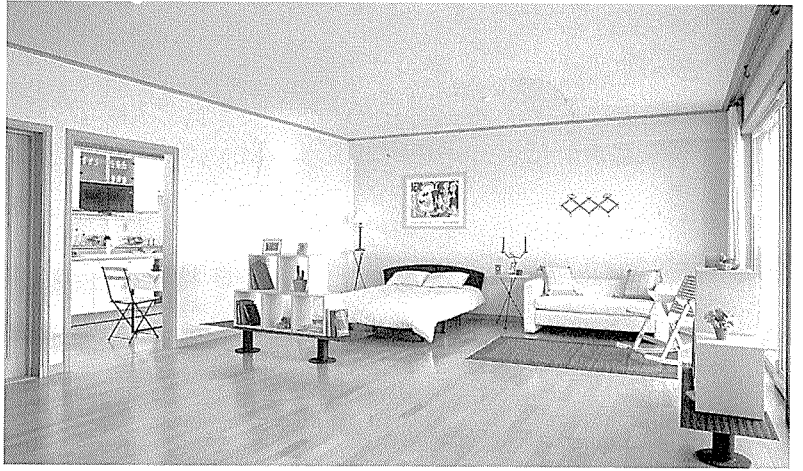
우선 자신의 집을 ‘내부’의 공간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도로는 ‘외부’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공간영역을 얼마간 확대하여 생각해 본다. 전면도로와 같은, 자신의 집과 관계가 있는 부분을 내부화하여 ‘내부’로 생각해 본다. 다시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동리 안까지를 내부화하여 ‘내부’로 생각한다. 이렇게 차례로 내부화하여 생각할 때, 어디까지를 내부화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외부공간의 미학」 중에서 -요시노부 아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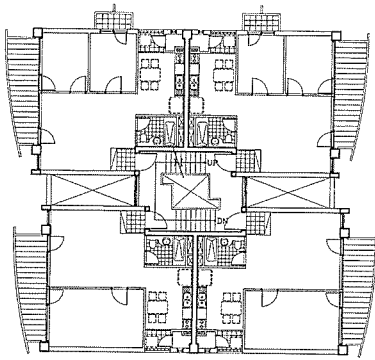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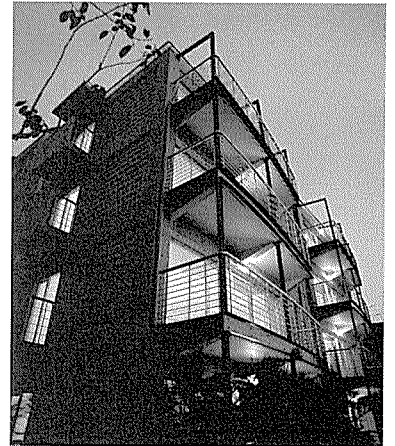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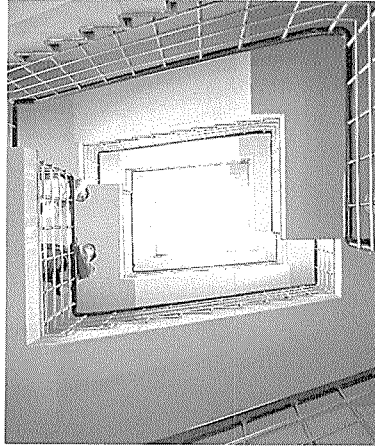
내외부 전이공간으로써 계단이라는 것도 두개의 레벨을 연속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평면상의 움직임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상당히 특이한 공간적 요소가 된다. 계단에 들어 서면 공간의 입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계단이라는 요소를 감춰두는 것보다 중요한 흐름위에 돌으로써 공간변화의 특징적인 요소를 갖게하여 집 전체의 열림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계단은 무한히 전개되는 외부공간(자연) 그 자체는 아니다. 어떤 질서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일정한 목적을 지닌 인위적인 환경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일부로 의미심장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한계설정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지만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고자 한다. 앞뒤, 상하의 도로로 나뉜 지형에 순응하여 반층씩 레벨차이를 두고 넓다란 선권을 둔 지하 다목적실로, 무한히 펼쳐진 옥상 테라스로 번져 나가고자 한다. 진정한 외부공간이란 덮개가 없이 열린 공간만이 아니라 개구부를 통해서 공간의 관통(Penetration) 또는 투과(Permeation)되어서 연속된 공간도 포함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집합주거에는 방 하나의 폭만큼의 스패를 가진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확실히 경제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움직일 수 없는 경계가 주거안에 생기게 된다. 익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주택에서는 개인마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한 설계상의 문제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편협하기만 한 공간에 연속과 분리라는 융통성을 반영하여 고정화된 평면유형의 질서감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개체화, 다양성, 환경성으로 대변되는 가구 식구구조를 이용하여 융통성(또는 복합성) 있는 가변 벽의 설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주거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가능한 범위내에서 거주자는 그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명제로 덮혀있지만 설계작업의 연장으로서 예의 주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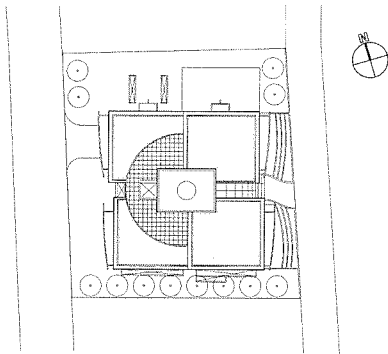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기준층 평면도



배치도

